

저는 비주얼 머천다이저로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5년 정도 근무하였고, 브랜드 콘셉트에 맞춰 제품을 출시, 디스플레이하고 매장 내부의 구성과 제품의 효과적인 배치를 판단하고 실행하는 일을 해왔고,
그로 인해 실제 소비자들에게 판매까지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고 경험했습니다.

비주얼 머천다이저 일을 그만둔 이후에는

여행, 학업 겸 호주에 가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지인과 1년 정도 같이 살면서 실무 위주의 코딩을 배웠습니다.

호주에서 온 이후엔 웹에이전시에서 퍼블리셔로 근무했는데 많은 프로젝트를 참여하면서 웹 개발, 흐름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8개월 정도 근무했을 때는 반복적인 업무에 성장 동기가 떨어져서 퇴사하였고,
이후 스터디에 나가서 여러 사람과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퍼블리셔에서 개발자로 넘어가는 시기를 지냈습니다.

스터디에 나가서 만든 사이드 프로젝트를 토대로

라이브 퀴즈쇼를 서비스하는 회사에 취업해 퀴즈쇼 문제 등록화면 퍼블리싱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후에 블록체인 코인을 서비스하는 회사에 프론트엔드 신입 개발자로 이직하여 정적 페이지 위주의 개발을 담당 했습니다.

이 회사의 초기 목표는 거래소상장이었는데 상장에 실패한 후 더 이상 투자를 못 받는 상황이 되었고,
직원들 월급 또한 못 주는 상황이 돼서 저는 빠른 퇴사를 결정하고 이직했습니다.

이직한 회사에서는

기존 Django 로 되어 있는 관리자 페이지와 클라이언트 화면 단을 React, Typescript, Apollo-Client로 리뉴얼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특히 좋은 개발문화와 잘하는 개발자들, CTO님과 함께 2년 동안 근무했는데

끊임없이 변하는 개발 패러다임에 맞춰 트렌드한 기술을 우리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것,

읽기 좋은 코드를 작성하는 것,

네이밍의 중요성,

단순하게 작성하는 코드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경험했습니다.

또한 모든 코드는 리뷰를 거쳐 배포했는데,

초기에는 코드 리뷰가 처음인 저에게는 필요성 측면이나 생산성 측면에서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드 리뷰를 꾸준히 받으면서 성장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 의문이 사라졌습니다.

다른 개발자분들이 저의 코드를 꼼꼼하게 리뷰해 줌으로써 많이 성장하는 걸 경험했고,

또한 리뷰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가 다른 개발자의 코드를 리뷰 함으로써 같이 성장하는 걸 경험했고,

코드를 읽는 눈도 생겼고,
제가 확실히 알지 못하면 리뷰를 남길 수도 없었구나 하는 것들도 경험하며 스스로 더 공부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2년 차일 때 신입 개발자분들이 입사하셨는데 제가 이 회사에서 그동안 배우고 경험했던 걸
신입 개발자분들에게 공유해주고 리뷰 또한 꼼꼼히 해줌으로써 신입 개발자분들의 성장에 보탬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서비스를 출시해보고 싶은 마음이 커져서,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이직을 한 회사는 스타트업 특성상 아직 기술 도입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 새로운 것들을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코드 리뷰 문화가 제대로 정착된 것 같지 않아서, PR 템플릿을 만들어서 코드리뷰 틀을
잡았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 **js** 로 되어있는 코드들을 **typescript**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번들 사이즈 최적화를 진행했습니다. 무거운 **library** 위주로 **treeshaking** 을 해서 프로젝트
사이즈 크기를 축소했습니다.

5개월쯤 근무했을 때 회사가 투자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는데 점점 직원들이 퇴사하고 저도 회사가 오래
유지 못 될 것 같다고 판단해서 퇴사를 했습니다.

이후 프리랜서 소속으로 **NFT** 마켓 쇼핑몰 홈페이지 & 관리자 페이지를 개발했습니다.
서버 개발자 1명과 같이 3개월 동안 프로젝트의 초기 빌드부터 배포까지 개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개발하면서 기존의 제가 경험했던 일반적인 웹 통신 개념과는 다른 부분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 서버와 통신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능이 많은데 **NFT** 쪽은
메타마스크라는 크롬 확장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블록체인의 **onChain** 데이터를 주고 받는 기능이 많았고
이런 **web3** 개념의 방식들을 경험하고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영어 교육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3개월 근무했습니다.

최근에는 **EMS**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1년 2개월 근무했습니다.
실시간 웹 소켓 통신을 통한 화면 모니터링 개발, 기존 레거시 코드를 리팩토링하는 작업,
예전 디자인을 새로운 디자인으로 리뉴얼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코딩을 시작했는데 매력과 재미를 느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새로운 언어, 기술에 대한 학습을 계속하면서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는 잘하는 개발자로 계속 성장하고
싶습니다.

회사의 좋은 사람들과 같이 성장하고 맡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